

화성시 문화더함공간서로-화성FC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주민의 체육활동을 함께 노력하며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위해 노력"

지난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화성FC 홈경기가 펼쳐졌다.

화성FC는 지난 2013년 창단한 화성의 시민축구단으로 이번 홈경기와 함께 화성시 외국인주민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화성시의 외국인주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해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센터인 문화더함공간 '서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구경기관람 초청권 및

축구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화성시에는 네팔,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국가별 FC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도 네팔,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여명의 외국인주민 FC 회원들이 함께 하였다.

2021년 개관한 문화더함공간서로는 화성시 외국인주민 국가별 FC들과 대 화모임을 진행하였다.

활동을 하면서의 고충과 욕구를 듣

고 함께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2022년에는 화성시 여성가족과 외국인지원팀과 화성시체육회의 노력으로 외국인주민 FC가 처음으로 단체등록을 할 수 있었고, 화성시체육시설에 약시스템을 통하여 축구장을 대관하여 이용하고 있다.

문화더함공간서로장 조정아는 "화성시 외국인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화모임에서는 체육활동을 통해 땀을 흘리

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가시간에 축구뿐만 아니라 자전거, 배드민턴, 크리켓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예산 지원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외국인주민의 체육활동을 함께 노력하며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shryun210@naver.com

화성시 다올공동체, 농어촌 특별활동 여름 캠프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직접 개 관하여 운영하는 만세작은도서관과 2020년 주민들로 구성된 다올공동체센터, 2021년 개소한 문화더함공간서로는 발안만세시장내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광복절 행사는 올해로 8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이어 왔다.

올해 행사는 특별하게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대학교,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도 다문화 멘토링 농어촌 특별활동 여름 캠프'와 함께 진

행되었다.

캠프는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손녕희 박사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2,000명이 넘는 경기도 멘토들이 경기도 내 3,000명에 가까운 멘티들에게 언니, 오빠, 선생님이 되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다올공동체와 함께 '농어촌 특별활동 여름 캠프'를 진행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손 박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멘

티들이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 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7명 멘토, 21명의 멘티들은 지난 8월 15일 화성을 떠나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촌레일파크 김유정레일바이크를 탐방, 8.15 광복절 77주년 기념 퍼포먼스 및 활동, 레고랜드, 춘천박물관 등 2박3일의 여정을 진행했다.

강성혁 기자

shryun210@naver.com

